

# 제141, 142회 발명교실

12월9일, 1월13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141, 142회 발명교실이 지난 12월 9일과 1월 13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 월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2월 9일 발명교실에서는 대일수산전복진주(주) 대표 이대일 사장, 1월 13일 발명교실에서는 명성촬영 대표 김영섭 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김영화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산목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천연전복진주 양식방법

대일수산전복진주(주) 이대일 사장

“일본의 한 잡지에서 <전복진주 양식 불가>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한줄의 기사는 세계도 전목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혈기 왕성한 젊음으로 막노동과 갖가지 일을 해보았지만 해야 할 일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대일 사장은 일본 잡지의 전복진주 양식 불가라는 기사를 보고 전복진주 양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전복진주에 대한 자료도 없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직접 실험을 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죠”

이런 어려운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이사장의 전복진주 양식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일은 끝

을 봐야한다는 신념으로 10여년간의 연구가 계속되었고 그동안 제주도, 흑산도, 무인도 등에서 그야말로 원시인처럼 생활하며 일에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날 13연동안 가지고 다녔던 전복중에서 1마리가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후 우연히 그 전복을 다시 찾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그 전복을 유심

히 관찰하던 이사장은 깜짝 놀라고 말했다. 그 전복의 겉테기가 투명해서 내부가 들여다 보였고 진주가 보였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뿔뿔이 기뻐다. 그동안 겪은 어려움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후 이사장의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핵을 삽입하지 않고 진주 내장낭에 진주질층이 형성되도록 구멍을 내면 구멍의 모양대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천연 전복진주



양식에 성공한 이사장은 정부지 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쳐 사

업화에 성공하여 국내는 물론이 고 수출도 왕성하게 하는 성공

한 발명가로 기억될 수 있게 되었다. <柳泰洙 記>

## 인터폰과 전화기를 결합하여 키를 작동시키는 장치

명성촬영 김경섭 사장

“인터폰의 벨이 울리므로서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소란스런 일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요즘 현대인치고 몸에 한두개의 열쇠쯤 차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키를 분실해 버렸을 경우는 정말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명가 김씨는 먼저 현관키에 암호번호를 입력시켜 숫자버튼을 사용하므로써 문을 열 수 있는 전자키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김씨의 발명에 대한 오기와 연구심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좀더 색다른 발명품을 만들어 보고자 마음 먹었다.

하루는 김씨의 아내가 아이들을 목욕시키는 도중에 인터폰이 울리는 바람에 난처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얘기를 들은 김씨는 문득 무선전화기를 떠올렸다.

“그래, 전자키 처럼 번호판이 부착된 전화기를 이용하면 무언

가 될 것 같구나!”

발명가 김씨는 무선전화기를 가져다 뜯었다, 부착시켰다 하기를 여러번. 쉽게 표현하면 무선전화기에다 전자키의 기능을 부여해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됐다. 이젠 집에서 일하다가 인터폰의 벨소리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95년 7월에 특허등록을 받은 발명가 김씨는 '95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 자신의 발명품을 출품하여 은상을 수상하는 명예도

누렸다.

전화기의 버튼을 이용하여 암호번호를 사용, 전자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 발명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자식 전화기와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한다. 더구나 집의 외부에서도 방문객과 전화기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도 가능하다고 하니 편리하고 훌륭한 발명품임에는 틀림없다. 이런 발명가 덕택에 병자년 새해의 앞날도 밝기만 하다. <李斗星 記>

발특 9601

